

# 예비영어교사의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이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re-service English Teachers' Tutoring on the English Language Learning of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최윤희

충신대학교 영어교육과

Yoonhee Choe(yhchoi@csu.ac.kr)

### 요약

이 연구는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영어 수업에서의 어려움과 요구를 분석한 후, 예비영어교사의 튜터링을 통해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튜터링을 시작 전, 100명의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희망하는 탈북 대학생은 예비 영어교사와 한 학기간 영어 학습 튜터링을 실시하였다. 탈북 학생들의 어려움과 영어 학습 요구는 양적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고, 튜터링을 통한 탈북 학생의 영어 능숙도와 정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탈북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 학습 요구도는 매우 높았다. 또한 한 학기 간의 튜터링을 통해 그들은 시기별로 네 가지의 주된 변화를 보였다. 첫째, 튜터링 시작 초반에는 영어 기초 학습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둘째, 튜터링 학습을 통해 다소 영어 능숙도가 향상되는 것을 탈북 대학생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영어 능숙도의 향상과 더불어 그들의 정의적 측면(학습 동기와 자신감)이 조금씩 향상되었고, 넷째, 튜터링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탈북 대학생은 영어 학습의 기초적인 측면(즉, 발음과 기초 문법 등)이 좀 더 향상되었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 이탈 대학생을 지원하는 대학 내 영어 프로그램 개발에 교육적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북한이탈 대학생 | 영어 학습지원 튜터링 | 예비영어교사 |

### Abstract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at difficulties and needs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have in their college English programs and what they experience over an English tutoring program offered b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Before the tutoring started, a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urrent difficulties and needs 100 NK refugee college students had. After the survey, six NK refugee college students and 12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tutoring on the voluntary basis.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and the effects of the tutoring program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e results show that NK refugee students reported the severe difficulties in learning English, their increased awareness of the slightly improved English skills over the tutoring program, the increased awareness of their affects, and the increased awareness of their linguistics 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tutoring.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supporting NK refugee college students are discussed.

■ keyword : | North Korean Refugee College Students | English Tutoring | Pre-service English Teacher |

\* 이 논문(저서)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1607)

접수일자 : 2016년 03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29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29일

교신저자 : 최윤희, e-mail : yhchoi@csu.ac.kr

## I. 서론

1999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2년 1000여명에서 2011년 한 해에만 2700여명에 이르러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총 약 26,000여명으로 보고되어 있다[16].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후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적응하는 기간을 거친 후 그들 중 10대에서 30대는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하고, 대학에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하고 있다[14][16]. 3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들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더 나은 사회 진출을 위해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잠재적으로 대학에 진학했거나 할 예정인 북한 이탈주민들은 전체의 약 39%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16][17]. 그러나 그들은 같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어휘 사용과 다른 학교 시스템으로 인해 대학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1][6-8][12][14].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업을 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는 대학 교양 영어, 영어로 진행되는 교양 및 전공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15][17][18].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이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만을 보고하는 데에 그치고, 각 대학 내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한 사례는 매우 부족하며, 그들을 위한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등의 대안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2][4][17][18]. 최근 이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여전히 영어 학습의 어려움 등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그들의 영어 학습 지원 운영 및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3-5][7][11][18]. 따라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증가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의 단순 실태 조사 또는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둘째, 증가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에 관한 적용 연구가 부족하다. 셋째,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학습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시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국 20여개 대학의 북한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영어 학습의 현황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북한이탈 청소년 및 대학생의 영어학습실태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북한이탈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실태와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오사라는 한 대안학교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그들의 영어 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어 수업이 검정고시를 대비하기 위한 문법교육과 읽기교육 위주의 문법·번역식 영어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의 폐쇄적 성향과 반미사상 등의 요인으로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9].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법·번역식 수업을 탈피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영어반 편성을 제안하였고 그들을 위해 체계적인 일대일 맞춤형 영어 보충 수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과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연구한 정세론과 임현우는 그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 영어 학습의 필요성 및 영어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에 관해 조사하였다[12]. 그 결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 영어 학습의 경험이 매우 부족하며, 한국에 입국 후, 다양한 기관을 통해 영어를 학습 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해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양적인 기회 뿐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하고, 실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2]. 양유미와 이소영은 탈북 중학생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통해 실시한 영어 학습 사례연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영어 학습 현황과 영어 학습의 어려움 및 그들이 한국 영어교육에 바라는 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누적된 영어 학습 결손으로 영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규 수업 외에 특별한 영어보충 수업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7]. 정재관, 민호기, 박용효, 김소연은 북한이탈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13]. 북한이탈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다각도 측면에서 면밀히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지원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지는 못하였으며, 북한이탈 대학생들까지 연계 지원하는 대안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북 대학생들이 주로 영어 때문에 대학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학을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영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10]. 또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전 가장 부족한 과목은 영어이며, 또한, 그들은 영어 학습을 위해 영어 학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15].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를 배우려는 의지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정착을 위해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언어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누적된 영어 학습 결손으로 그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학습자를 위해 영어수업을 지원하는 곳은 현재 대안학교나 민간 봉사 단체가 있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영어 능력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특히,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기에,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수의 북한이탈 대학생이 아닌,

전국 20개 대학의 100명의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영어 학습 현황, 어려움과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질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실태는 어떠한가?
- 2)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및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가자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학습 실태 조사를 위해 서울 및 지방의 20개 대학 100명의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본 연구를 위해 층화무작위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표출된 집단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좀 더 일반화시키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 중 설문지 조사 참가자들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였고, 연구 참가자의 태어난 연도는 79년부터 95년도 사이였으며, 87년부터 91년에 태어난 참가자가 52%로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은 서울 및 경기도 위치한 대학이 98개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였고, 그 중 외국어 교육 중심의 한 종합대학에서 58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전공은 중어중문학과가 33%로 가장 높았고, 경영학 15%, 행정학 8% 순이었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대체로 중국을 경유해서 입국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여 자신들이 중국 체류시 사용하고 배웠던 중국어가 편하기에 중국어를 전공으로 많이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어 전공 외에도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참가자의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은 고등중학교가 50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인민학교가 26명, 대학까지 졸업한 참가자는 4명이었다. 연구 참가자들 중 북한에서 영어를 배운 참가자는 52명, 배우지 않은 참가자가 47명이었다.

표 1. 설문 참가자의 기본 배경

항목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50	50.0
	여자	46	46.0
	무응답	4	4.0
생년	1979년-1980년	6	6.0
	1981년-1985년	16	16.0
	1986년-1990년	54	54.0
	1991년-1995년	17	17.0
	무응답	7	7.0
대학소재지	서울	91	91.0
	경기	7	7.0
	충청도	1	1.0
	경상도	1	1.0
대학유형	국립/사립	4	4.0
	사립	96	96.0
대학전공	중어중문	33	33.0
	경영	15	15.0
	경제	4	4.0
	행정	8	8.0
	기타	38	38.0
	무응답	2	2.0
재학대학학년	1학년	28	28.0
	2학년	36	36.0
	3학년	20	20.0
	4학년	14	14.0
	무응답	2	2.0
북한최종학력	인민학교	26	26.0
	고등중학교	50	50.0
	대학교	4	4.0
	무응답	20	20.0
북한에서영어학습경험	배움	52	52.0
	배우지 않음	47	47.0
	무응답	1	1.0

둘째, 북한이탈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 참가자는 위 설문 조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 중 희망자들과 서울에 위치한 한 사립 대학의 영어교육과 재학생인 예비영어교사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학습하고 가르치기를 선호하는 영어 영역 및 영어 능숙도 수준에 따라 연구 책임자에 의해 배정되었으며,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튜터링 운영 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제공받았고, 정기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튜터링 운영을 지원하였다.

표 2. 탈북대학생 영어 튜터링 참가자 기본 정보

이름	성별	나이	전공
K	남	35	신학
C	남	27	신학
D	여	39	신학
J	여	32	사회복지
L	여	38	사회복지
M	여	28	유아교육

\*연구 참가자의 이름은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함.

튜터링을 제공한 예비영어교사들은 모두 영어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으며, 다음 학기에 학교 현장 교육실습에 참가할 학생들이었고, 기본적인 영어 수업 운영 능력을 갖춘 예비영어교사들이었다.

## 2. 연구 과정 및 자료 수집

연구 과정은 첫째,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학의 북한이탈 대학생 동아리 회장을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 개인에게 설문지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연구 참가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둘째, 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한 학기 약 15주간 운영하였고,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번 배정된 튜터 두 명과 각각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영어 튜터링을 받았다.

표 3. 영어학습지원 동료튜터링 과정

주차	강의내용	튜터링	학습자료
1-2주	학습진단 희망 학습 내용확인	진단테스트	진단평가
3-7주	희망학습 교재 사용하여 튜터링 실시 (중간고사)	과제 확인, 설명, 과업제시, 형성평가, 과제부가	보충 학습지, 과제물, 형성평가
8주	-튜터1: 일반영어 등		
9-14주	-튜터2: 교과목 해석, 교 과목시험대비 공부 등		
15주 (기말고사)			

튜터링의 과정은 첫 시간에 진단 평가 및 북한이탈 대학생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매 시간 과제 점검 및 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영어 튜터링이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참가한 예비영어교사들에게 튜터링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튜터링 수업 일지를 모두 수집하였다. 셋째, 튜터링

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들의 영어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살펴보고, 연구자는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가자들과의 인터뷰 자료는 녹음하여 모두 전사하였다.

### 3. 자료 분석방법

양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설문지를 수거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19.0를 사용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4. 수집 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 내용 및 과정	연구 방법	수집 자료/ 분석 방법
설문 문헌조사, 설문제작 설문 조사, 요구도 분석	양적 분석	SPSS 기술통계
튜터링 튜터링 참가자 모집 사전 오리엔테이션 튜터링 운영 정기적 인터뷰 사후 간담회	질적 분석	튜터링 일지 튜터/튜티 인터뷰 관찰 일지 (내용 분석)

튜터링을 통해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능숙도 및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의 변화를 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튜터링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튜터링 학습일지, 정기적인 간담회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모든 내용들은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반복적인 읽기 방법을 통해 코딩(coding)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고, 코딩하여 도출된 주제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중요한 소재를 도출해내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근거 이론적(grounded theory)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19]. 또한, 결과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삼각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 본 연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에게 자료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재확인 하는 과정(member checking)을 거치고, 해당 전문분야 연구자를 초청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객관화하는 방법(peer-debriefing)도 실시하여,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탈북대학생의 영어 학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1) 대학영어 수업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대학영어 수업 시수, 난이도와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대한 인식의 결과,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의 수업 난이도에 대해 ‘다소 어렵다’ 37%, ‘어렵다’ 17%로 ‘어렵다’는 의견이 54%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그들의 대학영어 수업을 어렵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영어수업방식은 ‘일대일 튜터링’ 38명, ‘강의식’ 34명, ‘스터디 그룹의 소규모 그룹’이 24명이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일대일 튜터링’시 북한이탈 대학생의 개별 요구와 영어 능숙도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어서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1][14].

표 5. 대학 영어 시수, 난이도, 수업 선호도

항목	구분	인원 (명)	비율 (%)
대학 교양영어 수업 난이도	매우 어려움	30	30.0
	다소 어려움	24	24.0
	보통	25	25.0
	다소 쉬움	10	10.0
	매우 쉬움	2	2.0
영어 수업방식 선호도	무응답	4	4.0
	강의식	34	34.0
	스터디그룹	24	24.0
	일대일 튜터링	38	38.0
	기타	1	1.0
	무응답	3	3.0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대학영어를 가르치는 교, 강사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임을 아는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42명, 아는 경우가 41명으로 거의 비슷하였고,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북한이탈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많아,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자신이 탈북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기존

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1][14]. 교·강사가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학습을 도우려는 노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 47명, ‘아니다’ 36명, ‘무응답’이 17명이었다.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영어를 담당하는 교·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학업을 돕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질문하고 설명해 주는 방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가 19명, ‘이메일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충해주는 경우가 9명이었다. 대학 내 영어 강사에게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한다’는 경우가 76명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10명이어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약 80%가 자신의 영어 학습에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영어학습의 도움의 내용은 ‘문법이나 어휘’라고 응답한 경우는 38명, ‘영어기초 학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 ‘격려나 관심’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명이었다.

표 6. 교강사의 학습 도움 여부 및 희망 도움 내용

항목	구분	인원(명)	비율(%)
영어교수의 탈북민 인식여부	안다	41	41.0
	모른다	42	42.0
	무응답	17	17.0
도움 유형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	19	19.0
	질문 및 설명	24	24.0
	이메일/ 전화 등	9	9.0
	무응답	48	48.0
도움 희망 여부	원함	76	76.0
	원하지 않음	10	10.0
	무응답	14	14.0
희망 도움 내용	문법이나 어휘	38	38.0
	기초학습	24	24.0
	영미 언어의 차이	3	3.0
	격려나 관심	6	6.0
	무응답	29	29.0

2)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학습 의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한 결과, 아래에서 보듯이, ‘높다’와 ‘보통’이 32명으로 동일하였고, ‘전혀 없다’ 3명, ‘없다’가 2명으로 나타나 대체로 영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7. 영어 학습 의지

항목	구분	인원(명)	비율(%)
영어 학습 의지	전혀 없음	3	3.0
	없음	2	2.0
	보통	32	32.0
	높음	32	32.0
	매우 높음	14	14.0
수업 참여도	무응답	17	17.0
	수업 외 영어 학습		
	무응답	3	3.0
	그렇다	34	34.0
	아니다	63	63.0
대학 수업 외 영어 학습 유형	영어 관련 전공자들 통한 과외	20	20.0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학원	11	11.0
	근처 공부방 또는 복지관 프로그램	8	8.0
	원어민 일대일 영어수업	3	3.0
	기타	3	3.0
	무응답	55	55.0

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영어 수업 외 다른 영어 수업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4명,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가 63명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대체로 대학영어 외 다른 영어 수업은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대학생의 하루 영어 학습 시간의 부족과 더불어 앞으로 영어 학습의 시간을 늘리면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참가자들이 대학영어수업 외 받고 있는 영어수업의 유형을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묻고 조사한 결과, ‘영어 관련 전공자를 통한 과외’가 20명, ‘학원’이 12명, ‘집 근처 공부방 또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8명이었고, 무응답이 55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없다’가 82명으로 대체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튜터링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가 67명, ‘없다’가 13명으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대체로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영어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분석 결과

북한이탈 대학생을 위한 튜터링을 실시한 후 그 대학생의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적으로 도출한 결과, 튜터링 초

기에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 튜터링 중반에 그들은 점진적인 영어 능숙도의 향상과 더불어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자신감, 학습 동기 등)의 변화를 보였고, 튜터링의 마지막 시기에는 영어 발음, 기초적 문법 및 영어 어휘에서의 향상을 보였다. 도출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탈 대학生の 영어 학습의 어려움 인식

영어 튜터링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튜터링 시작 전부터 영어 학습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영어 학습의 의지도 강하게 보였으나, 튜터링을 시작한 초반에 예비영어교사인 튜터의 지도에 따라,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익히며, 독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래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일지에 작성한 내용 또는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발음이 힘들어요... 발음 기호 어려워요..’ (L, 여, 32세, 사회복지, 2주)

‘모음이 넘 힘들다.’ ‘발음기호가 힘듭니다.’ ‘아무리 잘 알려주어도 내게는 머리 아프고 힘들다. (K, 남, 35세, 신학, 3주)

‘영어의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주제로 튜터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D, 여, 39세, 신학, 2주)

위의 학습일지 및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튜터링의 초반부에는 일대일 튜터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어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1~2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아무리 대학생이라고 하여도, 영어 기초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그들이 학습지원받기 원하는 교재는 그들의 대학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전공과목의 영어 원서 교재이거나 대학영어 수업의 과제와 시험을 위한 교재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튜터링을 진행하니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참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알파벳도 모르거나, 대학 입학 전

알파벳을 겨우 익힌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양영어와 전공 수업의 원서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파닉스(phonics)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예비영어교사인 튜터들은 그들에게 발음기호를 가르치면서 먼저 영어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

위의 인터뷰와 일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이탈 학습자들은 영어 알파벳 정도를 알고 있으며, 기초적인 영어 문법과 어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학점을 받기 위해 학습받기를 원했던 대학수준의 전공서적과 대학 영어 교재는 매우 어렵고 그들의 영어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이탈 대학生の 영어 능숙도 향상에 대한 점진적 인식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신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래 내용은 튜터링 학습 일지 및 인터뷰에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영어 문법들에 대해 전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문법 해석과 함께 문장의 뜻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어서 영어 문장 읽기와 어휘의 뜻풀이가 전에 비해 쉬워졌습니다.’ (L, 여, 38세, 사회복지, 6주)

‘영어과목의 강의 진도를 따라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음.’ (D, 여, 39세, 신학, 7주)

‘글을 처음보다 수월히 읽어 내려가서 뿌듯하다. 또, 이중모음, 이중자음 이렇게 헛갈렸는데,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 좋다.’ (J, 여, 32세, 사회복지, 8주)

‘스토리가 재미있고, 숫자도 많이 외웠다.’ (K, 남, 35세, 신학, 9주)

위의 발췌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이탈 학습자들은 튜터링 초반에 자신의 부족한 영어 능숙도에 대한 인식과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우는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것과 달리, 조금씩 향상되는 자신의 어휘 수준과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예비영어교사인 튜터들이 초반부에서 북한이탈 대학생의 영어 능숙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들 수준에 적합한 교재 및 교수법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튜터링 중반부에 이르러, 그들의 능숙도 수준 및 적절한 교수법을 파악하고 적용하여, 필요한 기초 문법지식, 발음기호 및 파닉스 등을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학습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3)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자신감, 학습동기, 흥미 등) 향상

위에서 보인 영어 능숙도의 점진적인 향상과 더불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과 학습 동기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매주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영어 복습, 발음, 번역도 성실히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C, 남, 27세, 신학, 8주~9주)

‘이젠 번역하는 것의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 (D, 여, 39세, 신학, 9주)

‘이제는 두려움 보다는 빨리 OO 씨가 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L, 여, 38세, 사회복지, 10주)

‘처음에는 한 글자도 읽지 못했는데, 조금이나마 읽게 되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더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 여, 32세, 사회복지, 10주)

위의 내용을 보듯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튜터링에 참여하면서 학기의 중반부터 영어학습의 흥미, 학습 동기, 및 자신감 등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어 학습의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는 자신의 영어 어휘 및 읽기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가고 있다는 북한이탈 대학생 참가자 스스로의 인식의 바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 4) 영어 능숙도(발음, 어휘, 문법, 독해) 향상 인식

영어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영어 어휘 수준, 독해 능력, 영어 발음 구사 (phonics) 능력 등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인터뷰 및 학습 일지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튜터로부터의 도움 때문에 영어실력이 좋아지는 느낌, 강의시간에 의문나거나 모르는 것을 튜터를 통해 배우고 되새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D, 여, 39세, 신학, 12주)

‘하루하루 달라진 제 영어실력!! ㅎㅎ. 감사, OO 씨 덕분에 시험 잘 봤어요.’ (M, 여, 28세, 유아교육, 14주)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영어 알파벳도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어 반에 배정되어서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원에서 처음 컴퓨터 배울 때도 영어를 몰라 그림으로 인식해서 컴퓨터 용어를 배웠어요 처음 이 대학에 와서 교양영어 시간에 교수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전 아무것도 읽지 못했어요.. 너무 난감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튜터링 받으니까, 이제 뜻은 몰라도 알파벳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L, 여, 38세, 사회복지, 14주)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 특히, 발음, 어휘와 기초문법 내용 등이 향상된 것을 인식하고 만족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튜터링을 제공했던 예비영어교사 튜터들도 그들의 영어 능숙도가 어느 정도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한 학기 간의 영어 튜터링을 통해 기초적인 문법 지식 습득, 기초 영어 단어 수준 향상, 파닉스 능력 향상 등 영어 능숙도가 다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의 전공 수업에서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 등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 튜터링은 한 학기 정도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영어 능숙도 향



상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증가하는 북한이탈 대학生の 영어 학습 지원을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영어 학습의 실태와 영어 학습 의지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기간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한이탈 대학生の 영어 능숙도와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 연구 참가자인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자신의 대학영어 수업의 난이도는 ‘다소 높다’ 의견이 많았으며, 사용하는 교재 역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그들은 일대일 튜터링 식 영어 수업 유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학습에 도움 받기를 매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어 학습 유형인 일대일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을 한 학기 운영하였고,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및 정의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한 변화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튜터링 프로그램의 시작 초반부에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영어 튜터링을 통한 진정한 영어 학습을 처음하면서 영어에 대한 기초 학력이 부족하여, 발음, 읽기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 튜터링을 제공하는 예비영어교사 역시 북한이탈들에게 적절한 교수방법을 모르고, 적절한 교재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튜터링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몰랐던 어휘를 알게 되고, 발음기호를 익히고, 발음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신의 영어 능력 향상을 조금씩 자각하게 된다. 셋째, 북한이탈 대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어 능숙도의 향상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는 그들의 영어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영어 학습 자신감,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증가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튜터링의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이탈 대학생들은 구

체적으로 자신의 영어 능숙도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 학기 또는 방학에도 튜터링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예비영어교사와의 영어 학습 지원 튜터링 프로그램은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영어 능숙도 및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북한이탈 학생들의 영어 학습의 어려움만을 보고하는데 그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넘어,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과정을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제공한다. 나아가, 북한이탈 대학생들을 위해 우리 사회 및 대학에서 효율적인 영어 학습 지원의 방법과 대학영어 프로그램 운영 시 개선 방안 등 교육적 의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체로 서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대학생에게 한정된 설문 분석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대학의 북한이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단위 및 장기간의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양적, 질적 방법을 혼합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김성환, *한국 내 새터민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 김주영, *탈북 학생의 남한에서의 영어교육경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 김희겸, *새터민 대학생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 박은성, 김옥연, “대학 내 새터민들의 영어 장벽: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pp.335-359, 2014.
- [5] 박진경, *탈북초등학생 영어학습 현황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6] 배진형, 박미현, “여성 북한이탈주민 사이버대학생

- 이 경험한 사회복지실습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60-74, 2016.
- [7] 양유미, 이소영, “정규중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영어 학습 실태분석,” 외국학연구, 제19권, pp.59-78, 2012.
- [8] 이주현, 김민지, 박현준, 유시은, 노진원.“북한이탈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에 따른 건강증진생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60-167, 2015.
- [9] 오사라, *대안학교 새터민 청소년의 영어교육 현황 조사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0] 우영호,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1] 이문우, “북한이탈청소년들과 영어담당교사들의 영어교육에 관한 인식연구,” 영미어문학, 제114권, 제1호, pp.323-344, 2014.
- [12] 정세론, 임현우, “북한이탈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에서의 영어 학습,” 중등교육연구, 제57권, 제3호, pp.85-111, 2009.
- [13] 정채관, 민호기, 박용효, 김소연, *북한이탈고등학생 영어 학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14-6, 2014.
- [14] 정채관, 김소연,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영어학습 실태연구,” 외국학연구, 제32권, pp.65-88, 2015.
- [15] 최윤희, “기독교 새터민을 위한 예비 기독교영어교사의 영어교육봉사 사례연구,” 기독교와 어문학, 제12권, 제1호, pp.87-110, 2015.
- [1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일부, 2014.
- [17] Y. Choe, “Satermin(North Korean defector) college students voices in a peer-tutoring program for the English learning,” Paper presented at the KATE SIG Conference, Seoul, 10, January, 2015.
- [18] Y. Choi, “University English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10th Asia TEFL International Conference, Delhi, India. 2012.
- [19]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USA: Sage Publications, 2008.

## 저 자 소 개

최 윤 희(Yoonhee Choe)

정희원



- 1999년 8월 :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학사)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석사)
- 2011년 5월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Ph.D.)
- 2012년 3월 ~ 현재 :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영어교사교육 프로그램평가(English Language Teacher Training Program Evaluation), 영어 통합형 과업(Skill-integrated Task), 해외언어학습(Language Learning Abroad), 제2 언어 교사/학습자 정체성(Second Language Teacher/Learner Identity)